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 '지지층 불러내기' 총력

與 “투표율 높으면 野 유리? 이젠 아냐”

민주, 투표율 60%대 중반 ‘승리 공식’ 기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 이틀에 본투표 하루까지 총 3일의 투표 기간에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與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강조 사전투표 독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국 지역구 후보 254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후보들 모두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통념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진영의 승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다소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판세 속에 투표 포기를 고려하는 ‘사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과거엔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봤으나 이제는 20·30세대 청년층이 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기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선거이기 전에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지지자들이 불러내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맥락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투표함 바뀌기’ 등의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수영구를 찾아 유동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수영구를 찾아 유동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총투표율이 당의 승리 공식으로 통하는 60%대 중반을 넘어 70%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총투표율은 66.2%였고, 당시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합해 180석을 차지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결집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투표율로 갈릴 것”이라며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선대위 회의에서 총투표율 목표치를 65%로 내걸면서 “거당적으로 투표 독려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대위가 줄곧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창원 유세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달라”며 “일찍 일찍 투표하자”고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며 “아무래도 사전투표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를 기록

하자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목표치에 들어간 숫자 1과 3에

는 ‘지역구는 1번(민주당), 비례대표는 3번(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 “우세 110곳...경합 50곳 이상”

양당 결집...경합지역 지속적 확대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는 110석, 경합 지역구는 50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양당이 결집하면서 경합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비판 판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힘 실어 주자는 기류,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 등 양당의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며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판관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려우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합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함께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수도권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승기를 잡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하향 흐름을 그리다가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위기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다닐 것”이라며 “경합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위기감을 조성, 지지층 투표 참여를 적극화해 경합지역을 이겨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한 본부장은 “하지만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위기론을 통한 돌과 전락이 잘 먹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의석수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본부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미래와) 양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한 본부장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와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판빙 대출 및 막말 논란이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엔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경기도에서 최근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이 너무 갑작스레 검증에 뛰어든 느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 42조2천억 재정 투입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국비 24조원 등 총 42조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24조6천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천억원(6.1%)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

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

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우동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김주엽 “尹정부와 싸울 것” 지지 호소

진보당 김주엽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국민들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읽고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지만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햇공약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결국 정준호 후보를 향해 될 것이고, 그가 당선된다면 윤석열의 정치 검찰은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할 것이 자명하다”며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복구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김주엽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尹·국힘 역사 왜곡으로 국민 상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후보(여수을)는 4일 “제7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후보자들의 역사 왜곡으로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북한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망언에 대해 후보자 사퇴와 중앙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

했다. 그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억압 및 살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당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욱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갑)는 4일 “주말1동 거점 경로당 등 남구 소재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해 어르신 건강과 여가복지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은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리모콘 조작이 가능한 하드웨어 기반 화상 플랫폼으로 대형 스마트 TV를 설치해 IoT(사물인터넷) 헬스케어 기기 및 IoT 스마트패드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어르

신들을 위한 건강 및 취미생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와 남구 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은 남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진숙 “교육발전특구 적용 인재 양성”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을)는 4일 “북구를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거점으로 연계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복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올해 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여건이 조성됐다”며 정책 공약으로 ▲예술·산업·과학 3대 특화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형 학교 조성 등을 제시했

다. 전 후보는 “북구는 예술·산업·과학 등 3대 특화분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의 성장성이 크다”며 “북구의 청소년들이 북구에서 배우고,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형, 농업단체와 잇따라 정책협약

무소속 이석형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4일 “각 지역 농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을 잇따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영광군과 장성군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영광군 참여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영광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영광군여성농민회, 장성군 참여 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다.

이 후보는 “약무농업 시무국가(若無農業 是無國家·농업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의 정신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지역 활성화, 농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 여성·장성 청년 “이개호 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4일 “영광군 여성 200인과 장성군 청년들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여성 200인은 “이개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여성과 가족공동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장성 청년들도 “이개호 후보의 리더십이 장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이 후보는 “영광군 여성들과 장성군 청년들의 지지와 힘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성,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정권 심판,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